

경제 및 고용 동향

◆ 2009년 2월 광공업 생산 감소폭 크게 둔화, 서비스업 생산 증가, 소비·투자 감소

○ 2009년 2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에서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전월대비 6.8% 증가)하여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0.1% 증가(전월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 생산은 기타 운송장비(32.7%), 담배(43.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5.9%), 자동차(-20.1%), 1차 금속(-21.5%) 등의 업종에서는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7%), 금융 및 보험업(7.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7%)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운수업(-1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4.7%), 도매 및 소매업(-4.3%) 등의 업종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2월 소비와 투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6.2%, 21.2% 감소

— 소비재 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8.3%), 승용차 등 내구재(-4.0%),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모두 부진함.

—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1.2% 감소하였고, 국내건설기성은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실적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의 선행지표격인

건설수주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의 수요부진으로 주택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20.7%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사정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2.0으로 전월보다 0.4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9% 상승(생활물가지수 3.1% 상승)

- 2009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2005=10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7%, 전년동월 대비 3.9% 각각 상승함.
 - 2009년 2월 대비 보합인 통신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이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 음료부문이 1.6%, 교육부문이 1.4%, 가구집기·가사용품 부문이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월	2/4	3/4	4/4p	연간p	1월
생산	광공업 생산	4.0	7.0	5.9	11.0	6.8	10.6	10.7	8.6	5.6	-11.3	-	-10.3(6.8)
	제조업 생산	4.1	7.1	6.2	11.2	7.0	10.7	10.4	9.0	5.5	-12.1	3.0	-10.6(7.7)
	출하	5.1	7.2	5.4	10.6	7.1	8.9	7.9	6.3	5.3	-10.1	2.4	-9.6(-1.4)
	수출	6.7	9.9	9.1	16.2	10.2	14.3	13.8	13.5	10.3	-8.8	7.1	-8.0(8.6)
	내수	4.1	4.9	3.0	6.8	4.9	5.3	4.2	1.7	1.7	-11.0	-0.7	-10.8(4.9)
	서비스업 생산	5.4	6.4	7.2	6.8	6.4	6.4	6.3	4.6	3.2	-0.3	3.5	0.1(1.2)
소비	소비재 판매	5.7	5.2	7.1	4.5	5.3	3.9	3.5	2.5	1.4	-4.6	0.9	-6.2(5.0)
투자	설비투자	12.8	12.1	0.7	9.2	8.6	-0.9	-2.2	0.1	5.3	-16.2	-3.2	-1.2(-2.8)
물가		2.1	2.4	2.3	3.3	2.5	3.8	3.9	4.8	5.5	4.5	2.5	3.9(0.7)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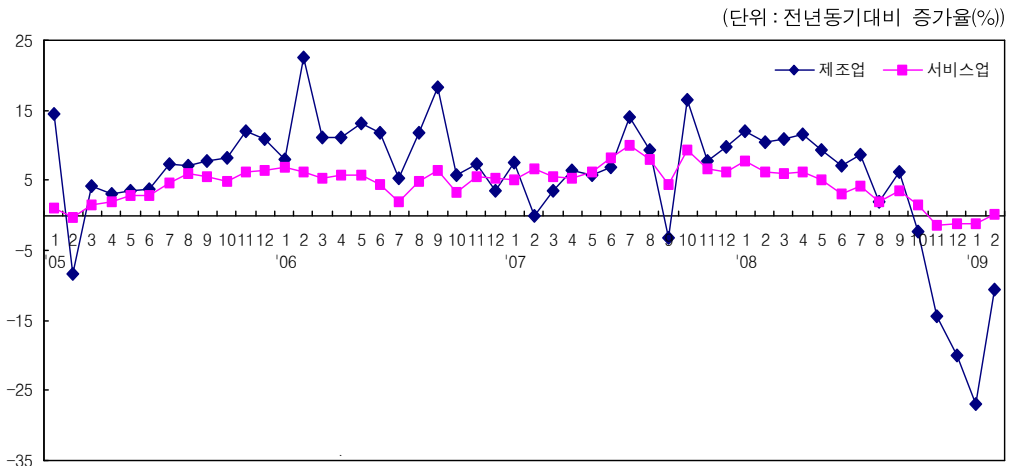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는 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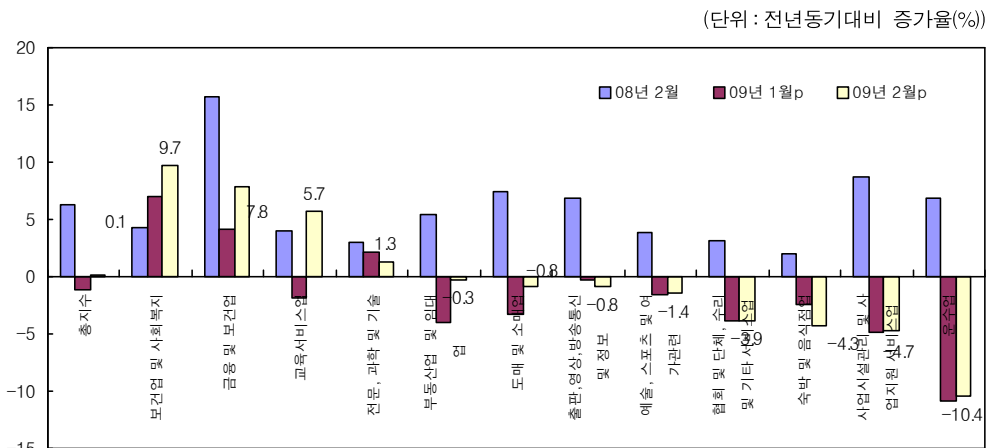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9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09. 3.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감소 지속

- 2009년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6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 명(-0.2%) 감소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975천 명으로 70천 명(0.5%) 증가한 반면, 여성은 9,692천 명으로 106천 명(-1.1%) 감소함.

- 2009년 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1.7%)이 전년동월대비 0.6%p, 여성(47.5%)이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함(그림 3 참조).
- 2009년 2월 중 고용률은 57.0%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68.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6.0%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음.
- 2009년 2월 중 취업자는 22,7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천 명(-0.6%)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3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0.0%), 여성 취업자는 9,3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 명(-1.5%) 감소함(그림 4 참조).
- 2009년 2월 중 실업자는 92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천 명(12.9%)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6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 명(13.6%)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1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11.9%)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4%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성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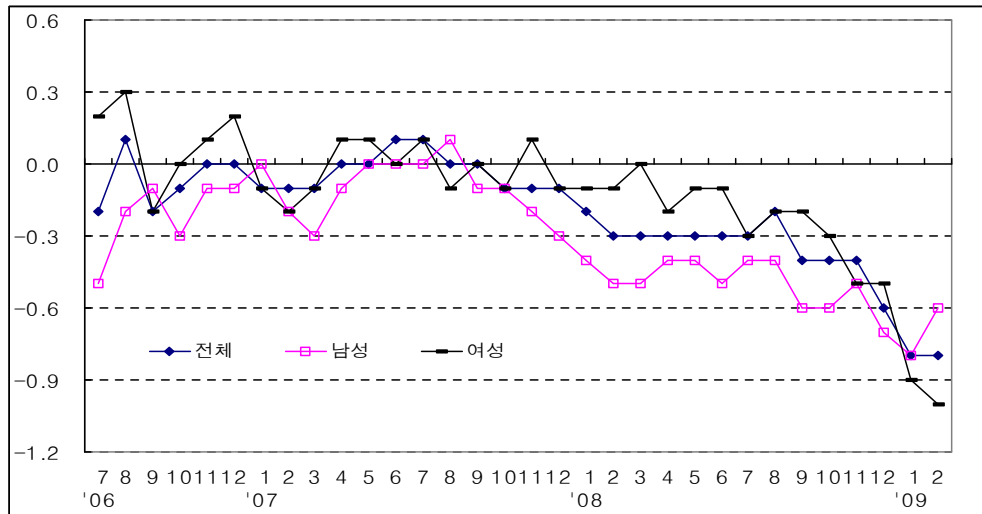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4,316 (1.0)	23,852 (0.7)	23,703 (0.7)	24,638 (0.6)	24,503 (0.6)	24,394 (0.3)	23,709 (-0.1)	23,667 (-0.2)
참가율	61.8	60.5	60.1	62.3	61.8	61.3	59.5	59.3
취업자	23,582 (1.2)	23,051 (0.9)	22,884 (0.9)	23,871 (0.7)	23,752 (0.6)	23,636 (0.3)	22,861 (-0.4)	22,742 (-0.6)
고용률	60.0	58.5	58.0	60.4	59.9	59.4	57.3	57.0
실업자	734	801	819	767	752	757	848	924
실업률	3.0	3.4	3.5	3.1	3.1	3.1	3.6	3.9
비경제활동인구	15,000 (1.3)	15,575 (1.8)	15,724 (1.7)	14,903 (1.7)	15,154 (1.9)	15,373 (2.5)	16,156 (3.2)	16,233 (3.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9년 2월 고용동향』, 2009. 3.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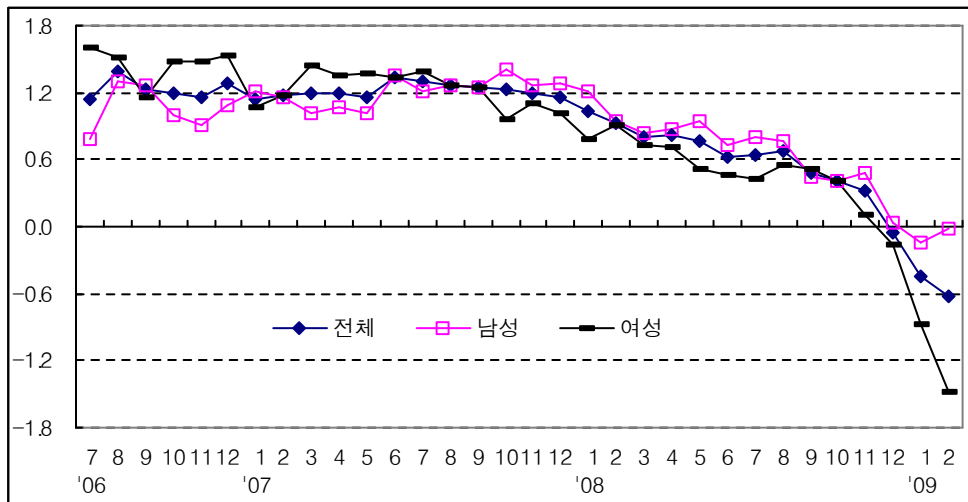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2009년 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2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9천 명(3.2%)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9천 명(3.7%) 증가하였고,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7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0천 명(3.0%)이 증가함.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75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4천 명(7.6%), 구직단념자는 1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 명(41.5%),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118천 명으로 39천 명(0.9%) 증가함.

◆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가속화

- 2009년 2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9천 명, 3.3%), 농림어업(6천 명, 0.5%)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176천 명, -4.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16천 명, -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76천 명, -2.7%), 건설업(-17천 명, -1.0%)에서는 감소함.
- 제조업,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2008년 이후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산업	23,582 (1.2)	23,051 (0.9)	22,884 (0.9)	23,871 (0.7)	23,752 (0.6)	23,636 (0.3)	22,861 (-0.4)	22,742 (-0.6)
농림어업	1,687 (-3.8)	1,384 (-4.4)	1,333 (-4.8)	1,842 (-2.8)	1,824 (-2.0)	1,695 (0.5)	1,282 (1.2)	1,340 (0.5)
제조업	4,013 (-0.8)	4,013 (-0.4)	4,017 (-1.1)	3,993 (-0.8)	3,934 (-1.3)	3,910 (-2.6)	3,895 (-3.2)	3,842 (-4.4)
건설업	1,852 (-0.5)	1,748 (-1.2)	1,699 (-0.5)	1,886 (-2.4)	1,801 (-2.2)	1,811 (-2.2)	1,698 (-2.4)	1,681 (-1.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19 (-0.3)	5,704 (-0.6)	5,685 (2.4)	5,670 (-0.7)	5,670 (-0.9)	5,657 (-1.1)	5,655 (-1.6)	5,569 (-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487 (4.6)	7,382 (3.8)	7,346 (3.7)	7,643 (4.0)	7,721 (4.5)	7,787 (4.0)	7,563 (2.9)	7,586 (3.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06 (2.7)	2,796 (2.7)	2,780 (2.4)	2,816 (1.8)	2,778 (-0.7)	2,754 (-1.9)	2,747 (-2.3)	2,704 (-2.7)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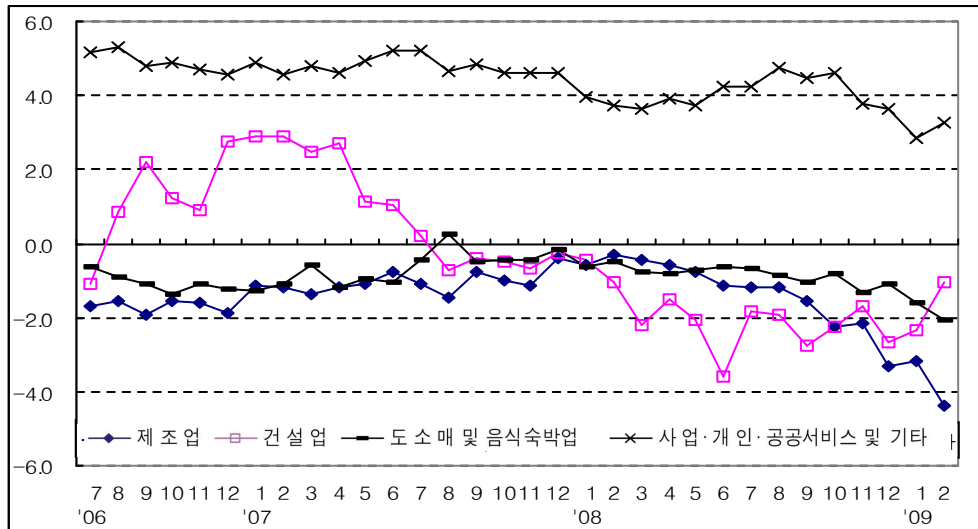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9년 2월 고용동향』, 2009. 3.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임시근로자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9년 2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7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9천 명(-3.7%)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95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7천 명(0.7%)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194천 명으로 390천 명(4.4%)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862천 명으로 192천 명(-3.8%) 일용근로자는 1,897천 명으로 81천 명(-4.1%) 감소함.
 - 임시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가속됨(그림 6 참조).
- 2009년 2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7천 명(13.1%)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082천 명으로 615천 명(-3.1%) 감소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08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 명(26.2%)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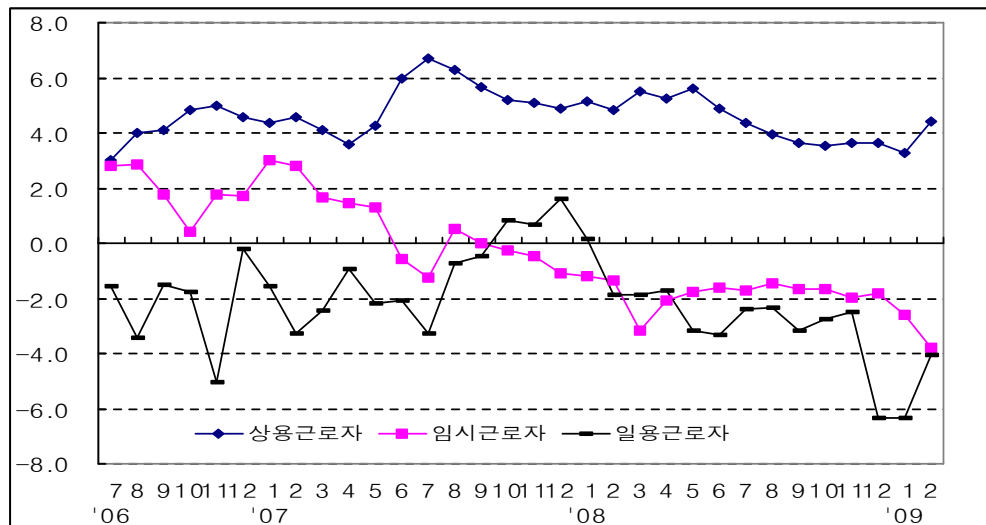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23,582 (1.2)	23,051 (0.9)	22,884 (0.9)	23,871 (0.7)	23,752 (0.6)	23,636 (0.3)	22,861 (-0.4)	22,742 (-0.6)
비임금근로자	7,426 (-1.8)	7,097 (-1.4)	7,048 (-1.2)	7,521 (-1.5)	7,522 (-0.9)	7,343 (-1.1)	6,808 (-1.8)	6,789 (-3.7)
자영업주	6,035 (-1.4)	5,816 (-1.3)	5,814 (-0.6)	6,073 (-1.1)	6,052 (-1.2)	5,939 (-1.6)	5,587 (-2.0)	5,558 (-4.4)
무급가족종사자	1,391 (-3.4)	1,281 (-1.8)	1,235 (-4.1)	1,449 (-3.3)	1,470 (0.7)	1,404 (0.9)	1,221 (-1.0)	1,231 (-0.3)
임금근로자	16,156 (2.6)	15,954 (2.0)	15,836 (1.9)	16,350 (1.8)	16,229 (1.3)	16,294 (0.9)	16,053 (0.1)	15,953 (0.7)
상용근로자	8,790 (5.1)	8,839 (5.2)	8,804 (4.8)	8,981 (5.2)	9,101 (4.0)	9,106 (3.6)	9,102 (3.3)	9,194 (4.4)
임시근로자	5,156 (-0.6)	5,064 (-1.9)	5,055 (-1.4)	5,141 (-1.8)	5,050 (-1.6)	5,062 (-1.8)	4,982 (-2.6)	4,862 (-3.8)
일용근로자	2,211 (1.0)	2,051 (-1.2)	1,977 (-1.9)	2,227 (-2.8)	2,079 (-2.6)	2,126 (-3.8)	1,969 (-6.3)	1,897 (-4.1)
36시간 미만	2,549 (-5.1)	2,770 (-8.1)	2,807 (-14.4)	3,055 (19.1)	5,132 (29.5)	2,833 (11.1)	3,146 (9.9)	3,175 (13.1)
36시간 이상	20,806 (2.2)	19,888 (2.6)	19,697 (3.9)	20,546 (-1.7)	18,139 (-5.7)	20,552 (-1.2)	19,051 (-2.4)	19,082 (-3.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9년 2월 고용동향』, 2009. 3.

〈그림 6〉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대, 30대, 모든 교육정도별 실업자 증가

- 2009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20대, 3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소폭 감소함.
 - 2009년 2월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20대(8.5%, 1.1%p), 30대(3.8%, 0.7%p), 50대(2.6%, 0.6%p)에서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9%, 0.3%p), 고졸(4.5%, 0.4%), 대졸 이상(3.8%, 0.6%p) 모두 상승하였음.
- 2009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924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874천 명으로 101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734(3.0)	801(3.4)	819(3.5)	767(3.1)	752(3.1)	757(3.1)	848(3.6)	924(3.9)
15~29세	312(7.0)	328(7.3)	326(7.3)	327(7.4)	303(6.9)	300(7.0)	356(8.2)	372(8.7)
30~39세	183(2.9)	193(3.1)	192(3.1)	187(3.0)	193(3.1)	202(3.3)	213(3.5)	229(3.8)
40~49세	126(1.9)	160(2.4)	171(2.6)	138(2.1)	138(2.1)	134(2.0)	144(2.2)	163(2.5)
50~59세	78(1.8)	83(2.0)	84(2.0)	82(1.8)	91(2.1)	93(2.1)	101(2.3)	113(2.6)
60세 이상	35(1.3)	38(1.6)	46(2.0)	33(1.2)	27(1.0)	29(1.1)	34(1.4)	47(2.0)
중졸 이하	109(2.0)	128(2.5)	130(2.6)	120(2.2)	113(2.1)	111(2.1)	144(3.0)	139(2.9)
고 졸	372(3.7)	402(4.0)	412(4.1)	368(3.7)	381(3.8)	383(3.8)	432(4.4)	442(4.5)
대졸 이상	253(2.9)	271(3.1)	277(3.2)	279(3.1)	258(2.9)	263(2.9)	272(3.0)	344(3.8)
취업무경험 실업자	40	44	45	49	39	37	44	50
취업유경험 실업자	694	757	774	718	713	721	804	874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9년 2월 고용동향』, 2009. 3.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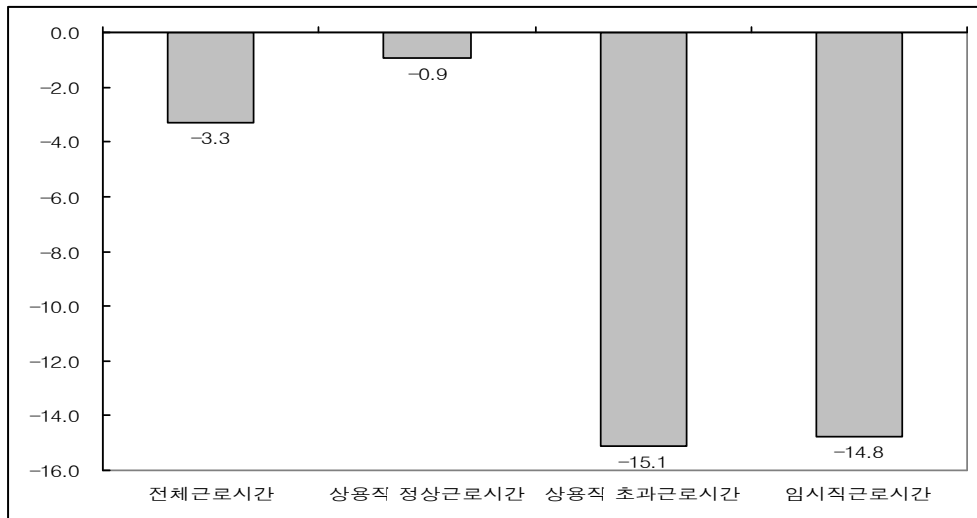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경기악화로 상용직의 초과근로시간과 임시직 근로시간 대폭 감소

- 2008년 4/4분기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
 - 2008년 4/4분기 평균 전체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172.9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기(178.8시간)에 비해 3.3% 감소
 - 주당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39.8시간 기록

[그림 7]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2008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단위 :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8. 4/4분기.

- 상용직의 초과근로시간, 임시직의 총근로시간 큰 감소
 - 2008년 4/4분기 평균 상용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을 기록하여 15.1%의 감소를 보임.
 - 임시직 근로자의 총근로시간도 월 95.1시간을 기록하며 14.8%의 큰 감소를 보임.

〈표 6〉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

	2007. 3/4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전 산업	168.7	178.8	170.7 (-1.2)	170.2 (-3.6)	171.7 (1.8)	172.9 (-3.3)
제조업	177.7	190.1	187.2 (2.4)	187.5 (-0.2)	185.5 (4.4)	189.6 (-0.3)
건설업	156.5	181.3	153.4 (-2.2)	153.0 (-7.5)	155.9 (-0.4)	158.4 (-5.5)
도매 및 소매업	164.0	167.7	165.1 (-2.0)	165.1 (-3.9)	168.0 (2.4)	170.2 (-1.6)
음식숙박업	169.6	172.9	166.5 (-4.3)	175.3 (-3.0)	174.4 (2.8)	174.9 (-4.0)
운수업	183.1	182.1	175.2 (-4.6)	181.3 (-2.5)	169.4 (-7.5)	173.9 (-9.5)
통신업	163.0	192.2	161.9 (-0.2)	159.4 (-7.1)	164.4 (0.9)	166.4 (-2.7)
금융 및 보험업	155.8	171.1	159.4 (0.3)	156.0 (-4.0)	160.8 (3.2)	164.3 (-0.8)
부동산 및 임대업	195.2	165.6	183.7 (-9.2)	183.6 (-11.4)	183.6 (-5.9)	188.5 (-4.6)
사업서비스업	158.3	197.6	168.8 (1.3)	166.2 (-0.1)	170.5 (7.7)	171.3 (2.1)
교육서비스업	135.0	167.7	138.3 (-2.6)	134.3 (-5.0)	149.2 (10.5)	145.2 (2.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5.6	142.3	165 (-3.1)	165.9 (-3.7)	168.7 (1.9)	168.3 (-5.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3.5	178.5	150.1 (-2.4)	152.5 (-3.0)	166.1 (8.2)	156.2 (-2.1)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3.6	159.5	177.1 (-0.7)	177.2 (-2.7)	176.6 (1.7)	177.8 (-3.7)

주: 1)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 운수업, 보건업 및 건설업에서 근로시간 크게 감소

○ 산업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감소 추세 속에서 운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건설업 등의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함.

– 2008년 4/4분기 중 운수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9.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5.7%의 감소 수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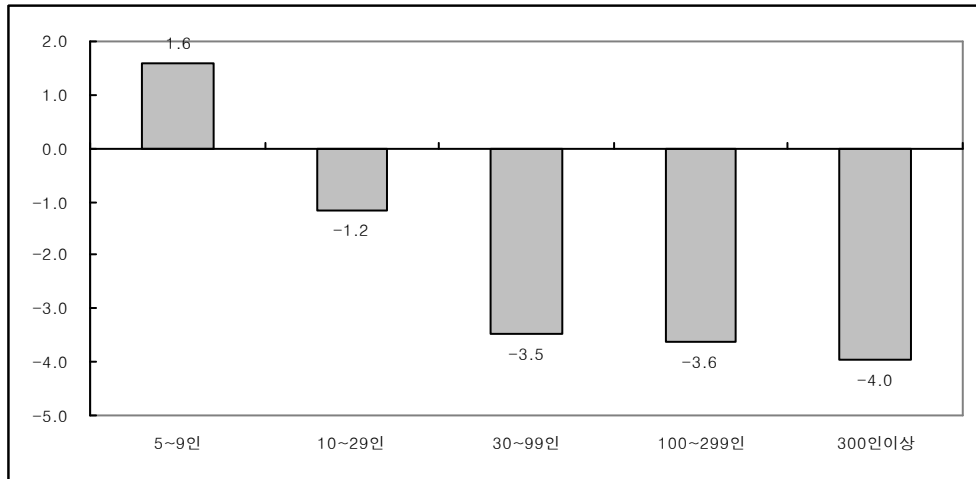
◆ 규모별 근로시간은 소규모는 증가한 반면, 나머지 모든 규모에서는 감소

○ 2008년 4/4분기 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5~9인 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나머지 모든 규모에서는 감소

– 규모별 근로시간은 5~9인에서는 1.6% 증가하였으나 10~29인에서는 1.2% 감소, 30~99인은 3.5% 감소, 300인 이상에서는 4.0% 감소하는 등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그림 8]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율(2008년 4/4분기)

(단위 : %)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8. 4/4분기.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근로손실일수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

- 2009년 3월 31일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1% 감소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27,602일로 전년동기대비 77.0% 감소함.

<표 7>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개소, 일, %)

	2009. 1. 1~3. 31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개소)	10	13	-23.1
근로손실일수(일)	27,602	119,859	-77.0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이며, 근로손실일수는 각년도 1.1~4.1 동안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노동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협약임금 평균인상률 1.8% 발표(2009년 3월 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현황 분석결과)

-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8%(공공부문 1.6%)로서 이는 전년대비 3.7%p가 하락한 것임.
- ‘2·23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간의 양보교섭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9년 3월 말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타결사업장의 41.8%인 350개소로 전년동기대비 464.5% 증가한 것이며, 지난 2월 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선 이래 가장 많은 350개소로 나타남.
 -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이 타결 완료된 사업장 비율)은 12.3%로 나타나 1997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노사간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3월 말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수도 48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2009년 3월 말 임금교섭 타결 현황

(단위: 개소, 일, %)

	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타결률(B/A×100)	임금인상률
전체	6,781 (6,745)	837 (570)	12.3 (8.5)	1.8 (5.5)
민간부문	6,506 (6,494)	814 (550)	12.5 (8.5)	1.8 (5.6)
공공부문	275 (251)	23 (20)	8.4 (8.0)	1.6 (3.7)

주: ()안은 2008년 2월 말 자료.

택시업종은 임금인상률 산정시 전년동기 비교를 위하여 제외.

◆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3.12)」 발표

- 노동부는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함.
 -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4년간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김.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절반 감면하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 제정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음(4월 중 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를

〈표 9〉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

	주요 내용
일자리 유리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파견근로 고용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파견근로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가급적 고용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 -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1주 15시간 미만 → 1주 20시간 이하)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 확산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의 인센티브 마련(한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이 2007년 말 현재 고용중인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법인세 공제(1인당 30만 원)하는 제도를 국세청과 협조하여 적극 홍보 ■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시정 신청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시정 기간을 연장(3월→6월)하여 근로자 신청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담완화 방안 추진 ■ 사회보험 등의 적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기업(9인 이하 기업)의 자율적 가입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신고기간(2009. 5~7)을 설정, 과거 체납보험료 및 가산·연체금 일체 면책 - 관련법 개정을 통해 4월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약 2조 원)을 기업복지 프로그램에 활용토록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 ■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지원금(528억 원, 27만 명), 능력개발카드제(연 100만 원 한도, 52억 원) 확대 시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2010년) - 주말·단기 고급훈련과정 제공(비정규직 JUMP사업, Job skills Upgrading & Maturing Program 사업, 2009년 103억 원, 추경 요구) - 비정규직 훈련생이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리 대부(2009년 596억 원), 기업에게는 대체인력 소요비용 지원(2009년 52억 원) ■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다수고용업체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점검, 무허가 파견업체 집중 단속, 각 청별 사내하도급 분야 전담TF 구성 - 수급·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안정을 위해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원·하청기업의 역할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확산
일자리 개선대책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앞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 예정임.

- 이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여당의원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음.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사용을 남발하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정부, 추경예산 4.9조 원 투입하여 55만 개 새 일자리 창출대책 발표(3. 19)

-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4.9조 원대의 추경을 통한 55만 명(연간 기준 28만 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대책을 확정함. 또한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6.5만 명 → 21만 명, 583억 원→3,653억 원)하고, 무급휴업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3개월 한도, 신규 6만 명, 992억 원)을 지원함. 또한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대폭 확대함.
 -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 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6.8만 명, 3,052억 원)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40만 명, 2조 원)를 시행함.
 -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을 새롭게 도입(9.4만 명, 203억 원)하고,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청년층 대상의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기로 함.
 -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신설(10만 명)하고,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을 확대(5만 명)함.
 - 최근의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충(1.6조 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월 30만 원)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이번 일자리 관련 추경 편성과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통해 청년·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직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용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일자리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함. **KL**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